

연구논문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Death Acceptance and Religion in the Case of Koreans

이기홍**

Gihong Yi

이 논문은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의 관계를 전국 규모의 조사 자료(1,000명)를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죽음 수용은 죽음에 대한 여러 태도 중 죽음 불안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죽음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립적인 의미를 부여하므로 최근 들어 관련 연구자들이 선호한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일치된 견해를 내지 못하는 죽음 수용과 종교와의 관계를 몇 배경 변수들과의 관계와 함께 로에스 기반 기법과 경로분석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종교인이 무교보다, 여자가 남자보다,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었다. 학령은 죽음 수용과 복잡한 곡선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나, 대학원 이상의 수준에서는 더욱 죽음 수용적이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불교보다 더욱 죽음 수용적이었다. 이러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축적시키면 죽음에 대해 극단적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최적화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

주제어: 죽음 수용, 종교, 성별, 나이, 교육

This paper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cceptance and religion using a national data set of 1,000 respondents. Death acceptance conceptually contrasts with death anxiety, but is recently preferred by death researchers due to its relatively neutral connotations. This research look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death acceptance and religion as most previous research thereon has been unable to suggest some definitive conclusion, using the LOWESS technique, path analysis, etc.. According to the result, the religious, women and the older are more death-accepting than the irreligious, men, and the younger respectively. Education forms a complex and curvy-linear relationship with death acceptance; at the level of graduate education and higher, the respondents get

* 이 연구(질문지 작성, 자료수집 및 분석)는 한국학술진흥재단(KRF-2007-411-J01903)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음. 이 논문(선행연구 검토)은 2007년도 한림대학교 교비 학술연구비(HRF-2007-01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줄고에 대해 평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 공동 연구원 이기홍.

E-mail: gihongyi@hallym.ac.kr

more death-accepting. By religion, Protestants turn out more death-accepting than Buddhists. Should this kind of research continue, the results may be applicable to determine optimal ways to approach the population with extreme attitudes towards death.

Key words : death acceptance, religion, gender, age, education

I. 서론

이 연구는 목적은 현대 한국인에게 죽음 수용(death acceptance)과 종교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죽음 수용과 종교와의 관계를 더욱 정교히 설명하려는 맥락에서 성별, 나이, 학력 및 삶 만족과의 관계도 살펴볼 것이다.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는 중임을 시사하는 근거가 최근 들어 특히 많이 보인다. 한국의 자살률은 꾸준히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지난 몇 년 간 유명인들의 (자살을 포함한) 잇단 죽음은 그 원인과 당사자의 생사관이 보도되자 죽음의 의미에 대한 대중적 토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인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인의 심성 및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 및 자살 예방(Neimeyer et al. 2001) 등 삶의 존엄성을 높이는 정책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 연구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논의 및 태도 중 ‘죽음 수용’에 초점을 둔다. 죽음에 대한 태도 연구는 어느 정도 추상화된 ‘죽음(death)’ 자체와 좀더 구체적으로 ‘죽음에 이르는 과정(dying)’에 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길란·이영숙 2008). 죽음에 대한 연구이라는 부정적 태도를 바탕으로 한 ‘죽음 불안(death anxiety)¹⁾’을 중심으로 한 것과, 보다 중립적/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죽음 수용’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고길란·이영숙 2008; 김지현·민경환 2005), 그 둘은 반대되는 개념이며 척도로 사용되면 상호 반비례하는 관계를 형성한다.

이 연구에서 다룰 ‘죽음’과 개념적으로 약간 다른 ‘죽음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언젠가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것이라고 인식하므로 ‘죽음’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비교적 일치되어 있어, 그 주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매우 특수

1) 과거에는 유사한 개념으로서 ‘죽음(에 대한) 공포(fear of death)’도 쓰였으나, ‘죽음 불안’이 더욱 선호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하고 구체적인 문제의식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죽음 수용이라는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죽음을 불안 또는 공포와 연관지어 부정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더욱 개방적 자세로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죽음 수용은 종교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또는 ‘종교는 죽음 수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하는가?’ 종교의 전통적 기능 중 하나가 죽음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제공한다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에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는 류의 제도 종교(institutional religion)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상업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으므로, 그러한 종교의 고유 기능이 어느 정도 발휘되고 있는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듯하다. 특히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상식과 달리 죽음 수용과 종교는 뚜렷한 관계가 없기도 하다. 이 연구는 세속화된 종교의 시대에도 한국의 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에 비해 죽음 수용에 대해 과연 다른 태도를 보이는지, 만약 그러하다면 그 차이가 주요 종교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맥락 내에서 성별, 나이, 학령과 같은 배경 변수가 죽음 수용 및 삶 만족과 어떠한 관계를 나타내는지도 함께 분석할 것이다.

II. 선행연구 검토

1. 죽음 수용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하는 국내 학자들의 선행연구는 서양에서 제시된 가설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여 특정 연령대(주로 노인)를 대상으로 자료를 모으고, 죽음 수용과 개념적으로 반대되는 죽음 불안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그것을 결정하는 다양한 인구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것(고길란·이영숙 2008; 고승덕 외 1999)이 출발점이다.

죽음 불안과 관련된 국내의 기타 연구는 주로 특정 요인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죽음 불안과 가족 요인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도 하였고(장덕희·이승민 2007), 레저 및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사회 활동과의 상관관계를 검토하기도 했다(남재화 2007; 여인숙·김춘경 2005). 죽음 불안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자아 통합감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것도 있고(최외선 2007), 보다 정책적으로는 죽음 불안이 우울 및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이현지·조계화 2006) 또는 시설 거주 노인의 죽음 불안을 결정하는 요인을 심리학적 변수를 중심으로 한 연구(권오균 2008)로 이어지기로 했다. 건강과 관련지

어서는, 노화 과정과 죽음 불안의 관계에 대한 연구(윤가현 외 2007) 또는 주관적 건강 상태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한영란 2007)로 발전되기도 했다.

이렇듯 죽음을 불안을 중심으로 개념화한 연구가 많은 이유는 죽음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러한 관례가 오래 전부터 연구자들에게도 고착화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관례에 얽매이다 보면, 연구 대상자들도 죽음을 지나치게 부정적인 선입견과 함께 받아들일 수 있으며, 관련된 요인들에 부정적인 느낌이 전이될 가능성도 높아 방법론적으로 문제가 되기 쉽다.

그러한 관례를 벗어나 ‘죽음 수용’을 개념적으로 명시하여 수행한 연구도 있다. 이생의 끝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개념으로서의 죽음 수용은 죽음 불안보다 더욱 건강하고 중립적인 개념이므로(윤여정 2000; 윤진 2001), 죽음 불안이라는 개념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사항과의 관련성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따라서 비교적 최근의 죽음 관련 연구에서는 죽음 수용을 죽음 불안을 초월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하고(김지현·민경환 2005), 죽음과 관련된 다양한 태도 중 필수적인 것으로 구성되기도 한다(이지영·이가옥 2004). 일부 연구에서는 죽음 준비도(準備度)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사실상 죽음 수용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하기도 한다(문남숙·남기민 2008).

죽음을 불안 또는 수용 어느 쪽과 연결시켜 개념화하든 이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할 종교, 성별, 나이, 학령 및 삶 만족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지나치게 다양하여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특정 방향성이 있는 가설을 설정하기는 어렵다.

2. 죽음 수용과 종교

이 연구에서 중시하는 종교와 죽음 수용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래와 같이 매우 다양한 세부 주제들 및 심지어 상충하기까지 하는 결론들로 정리된다.

죽음을 직시하여 수용하는 것이 삶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전영기 2000)이 경험적으로도 증명된다면, 삶 만족과 관련된 요인들의 죽음 수용에 대한 영향도 중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죽음 수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기본적 배경 변수들이 삶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그러한 변수들은 죽음 수용과 관련해서 직간접적인 인과 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종교성을 몇 가지로 분류했을 때 일부는 삶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있다(Levin et al. 1995). 따라서 죽음 수용과의 관계보다 더욱 많이 연구된 종교와 삶 만족과의 관련성에 대해 먼저 검토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미국의 노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삶 만족은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았지만, 종교는 기본적으로 정신 건강을 강하게 하는 기능이 있다(전미애 1999). 삶의 질에 주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김미숙·박민정 2000), 삶에 대한 의미 부여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긍정적이라는 결과도 있다(김수정 2006). 또한 종교는 (특히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 갖거나 버리는 것보다 정신 건강이나 생활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이 한국의 자료를 통해서(손용진 2007), 그리고 미국의 자료를 통해서(전혜정 2004) 확인되기도 했다. 종교는, 삶의 질과는 조금 다른,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와 긍정적 관계를 보인다는 결과도 있다(홍현방 2002).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와의 직접적 관계에 대해서는 삶 만족과의 관계에 비해 분명한 결론이 나지 않은 듯하다. 이 주제에 대해 비교적 오랫동안 연구해 온 외국의 결과를 보아도, 중간 정도로 종교적인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도리어 가장 큰 불안을 느낀다거나(Nelson & Cantrell 1980),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가 뚜렷한 관계가 있다는 결론(Cicirelli 1999)과 그 반대의 결론(Fortner & Neimeyer 1999; Neimeyer 1994) 또는 종교와 죽음 불안은 직선형적으로는 아니되 곡선형적으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결론(Wink & Scott 2005) 등이 대립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종교가 죽음 불안의 여러 요소들과 상이한 관계를 형성하므로 뚜렷한 설명력을 갖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Hoelter & Epley 1979), 죽음에 대한 태도와 종교성을 내세에 대한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Falkenhain & Handal 2003).

국내 연구 결과를 보면, 신앙심은 죽음 수용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가 노인 자료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지배적이다(서혜경·윤민석 2008; 윤가현 외 2007).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 역시 종교 관련 변수와 죽음 수용과의 관계를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김지현·민경환 2005).

3. 죽음 수용과 성별, 나이 및 학력

죽음 수용과 종교와의 관계를 보는 맥락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배경 변수는 성별, 나이 및 학력이다.

성별에 따른 죽음에 대한 태도에 대해 국내 학자들이 수행한 연구를 종합하면, 어느 쪽이 죽음 수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보인다고 잘라 말하기 어렵다(서혜경·윤민석 2008). 노년층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이 된다는 점은 외국 연구(Thorson

& Powell 1990; Wink & Scott 2005)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윤가현 외 2007) 또한 한국 노인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험적으로 논의(김연숙·김지미 2009)된 바 있으나, 한국 전체 인구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교육 수준과 죽음 불안이 반비례한다는 주장 역시 한국 노인의 자료를 근거로 제기된 적이 있으나(김연숙·김지미 2009), 전체 인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된 바는 사실상 없다.

III. 자료, 변수 및 방법

1. 자료

이 연구의 분석에 쓴 자료는 2008년 7~8월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1,000명의 성인을 무작위 표집하여 수집한 것이다. 죽음 관련 태도에 관한 국내의 대부분의 연구가 수십명 이하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이거나, 특정 기관(의료/복지/교육) 또는 소지역을 중심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편의 표집을 통해 조사했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전국적 통계 자료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높다.

2. 변수

1) 주요 종속변수

죽음 수용은 전세계적으로 죽음에 대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질문지 모음’이라 할 수 있는 죽음에 관한 태도 질문집(Wong et al. 1994)에서 추린 총 12항의 하위 질문들을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매우 그렇다: 5”)로 측정하고, 그들의 합을 지수화하여 측정하였다. 사용된 질문들은 아래와 같다.

질문 1.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

질문 2. 죽음이 모든 것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질문 3.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는다.

질문 4.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을 피하려고 하지는 않는다.

질문 5. 죽음과 관련되는 모든 것을 피하지는 않는다.

질문 6. 죽음에 대한 생각이 들 때마다 그 생각을 밀어내려고 노력하지는 않는다.

질문 7.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8.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는다.

질문 9. 죽음이 단지 살아가는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10. 죽음을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11. 죽음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12. 죽음은 이 세상의 괴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 12 항목들에 대한 내적 일치도 계수 α 값(Cronbach's α)은 .88로 나타나, 모든 항목을 하나의 지수로서 인식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부 분석(경로분석)에서는 삶 만족을 종속변수로 이용하였다. 이 변수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만족스러운 상태를 '0'이라고 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상태를 '100'이라고 가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현재 상황의 모든 것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삶 만족도에 점수를 매기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2) 기초 배경 변수

종교는 질문지에서 불교, 개신교(기독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기타 및 종교 없음(무교)의 선택지를 사용하여 폐쇄형으로 측정하였다. 종교 있음과 없음을 가르는 가변수 및 1%가 넘는 응답을 보인 불교, 개신교 및 무교 각각의 범주를 표시하는 가변수로 변형하여 분석에 응용하기도 했다.

나이는 2009에서 조사 대상자의 출생 년도를 뺀 값을 만 나이로 간주하여 사용하였다. 여성(가변수)은 성별에 관련된 자료를 변형하여 0은 남성을, 1을 여성을 나타내도록 했다.

학령(學齡)은 제도 교육을 받은 해의 수를 나타낸다. 월수입은 취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금을, 취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월 단위의 용돈을 각 경우의 월수입으로 보고, 두 경우 모두 만 원 단위로 측정하였다.

3. 방법

각 변수의 분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분석을, 기초적인 상관 및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몇 가변수들의 이항분포에 따른 죽음 수용 등을 보기 위해 T-검증(t-test)을 사용하였다.

일부 변수들 간의 관계는 연속적 성격의 변수들 간의 비직선적 또는 비선형적(nonlinear) 관계까지도 파악하기에 적절한 로에스(LOWESS, locally weighted scatterplot smoothing) 방법(Cleveland 1979)을 사용하였다. 로에스 방법은 현재 다양한 세부 기법으로 발전되어

있으며,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일반적인 회귀분석 등에 사용되는 함수들을 통해 가설화되기 어려운 경우에 이용하기에 적절하다. 이 연구의 중심 주제인 죽음 수용과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연구가 상충될 정도의 다양한 결론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선형적 또는 특정 관계를 상징하는 가설을 세울 근거가 부족하여, 로에스 방법 기반의 기법을 사용하여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이 이 주제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였다.

죽음 수용 등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중간 단계에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죽음 수용과 삶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간의 다층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경로분석을 이용하였다. 모든 통계분석과 그래프는 Stata/SE 10.1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선행연구에서 주로 쓰여 온 질적 방법론이나 간단한 통계기법 등보다 더욱 정교한 분석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성, 나이, 종교, 교육 등이 죽음에 대한 태도와 일정한(선형적) 패턴을 보이지 못하는 경향(이지영·이가옥 2004)을 초월하여 재정리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V. 분석

1.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

〈표 1〉과 〈표 2〉는 각각 범주 변수와 연속 변수를 위주로, 이 연구의 분석에서 사용할 주요 변수들의 기술 통계값을 제시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한 조사 자료를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를 통해 볼 때 여성과 고령자들이 국가통계포털(www.kosis.kr) 등에 공개된 성/연령별 자료에 비해 약간 과표집되었다. 그러나 아래 제시할 주요 분석결과에서는 죽음 수용과 같은 측정치를 기술 통계의 수준에서 이용하지 않을 것이고, 성/나이 등의 인구학적 변수에 가중치를 주는 등의 보정이 방법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면 예상하지 못했던 치명적 오류를 동반할 수 있으므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종교의 분포는 각종 통계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2.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표 3〉은 위에서 제시한 죽음 수용과 주요 배경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보다 정교한 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한 결과이다. 종교와 관련된 변수 외의 주요 배경 변수는

〈표 1〉 주요 범주 변수들의 기술 통계

(단위: 명)

변 수		빈 도	%
성 별	남	453	45.3
	여	547	54.7
종교 유무	없음	388	38.8
	있음	612	61.2
종교 유형	불교	271	27.1
	개신교	258	25.8
	천주교	68	6.8
	유교	2	0.2
	천도교	4	0.4
	기타	9	0.9
	없음	388	38.8

〈표 2〉 주요 연속 변수들의 기술 통계

변수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나이	1,000	20	91	55.043	55	18.840
학령	998	0	21	10.366	12	4.917
월수입	982	0	1,500	116.471	60	143.130
삶 만족	1,000	0	100	65.308	70	16.833
죽음 수용	1,000	15	60	40.146	41	7.692

인구학적 변수인 성별과 나이, 그리고 사회경제적 변수인 학령과 월수입을 고려하기로 한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이 비교적 새로우므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참고할 만한 선행연구가 그리 많지 않고, 이러한 변수들은 인간의 의식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들로 간주되므로 그들 간의 관계를 연역적으로 가정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일부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종교의 유무는 죽음 수용 및 삶 만족과 명쾌히 연관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일부 선행연구에서 주장했던 죽음 수용과 삶 만족의 관계 역시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표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성 별 (여성=1)	나 이	종교유무 (있음=1)	학 령	월수입	삶만족	죽음수용
성 별 (여성=1)	1						
	1,000						
나 이	.121***	1					
	1,000	1,000					
종교유무 (있음=1)	.215***	.177***	1				
	1,000	1,000	1,000				
학 령	-.295***	-.670***	-.102**	1			
	998	998	998	998			
월수입	-.358***	-.321***	-.138***	.388***	1		
	982	982	982	980	982		
삶만족	-.087**	-.260***	-.028	.319***	.237***	1	
	1,000	1,000	1,000	998	982	1,000	
죽음수용	.101**	.118***	.083**	-.105***	-.045	-.034	1
	1,000	1,000	1,000	998	982	1,000	1,000

* $p < .05$ ** $p < .01$ *** $p < .001$

3. 종교 유무와 죽음 수용

전체 응답자 중 무교 응답자들(38.8%)과 종교인(61.2%)의 죽음 수용 정도의 평균은 각각 39.35와 40.65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T-검증²⁾으로 비교하니, 후자가 전자보다 죽음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욱 수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자의 평균값을 후자와 비교할 때, 낮거나 다르다는 가설은 각각 0.004, 0.009의 p-값을 보임으로써 채택되나, 전자가 후자보다 더욱 높은 죽음 수용도를 보인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p = .996$).

1) 종교 유무 집단 내에서 죽음 수용의 성별 차이

먼저 응답자 전체의 죽음 수용에 대한 성별 차이를 먼저 T-검증으로 보면 여자가 죽음을 더욱 수용적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즉,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

2) 이하의 T-검증은 선행연구 결과의 다양성 관계로 가설 없이 진행되었으므로, 한 집단의 평균을 다른 집단의 것과 비교할 때, ‘크다’, ‘다르다’, ‘작다’의 세 가능성을 모두 언급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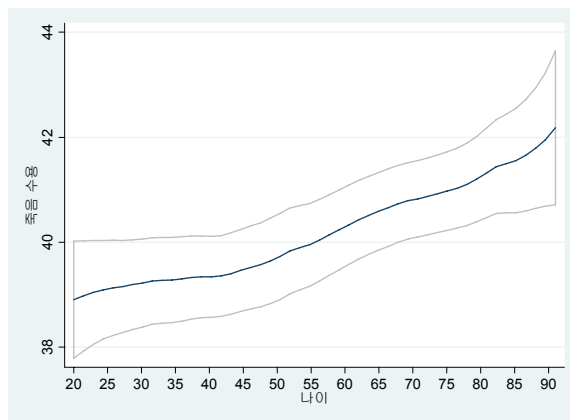
이라는 가설과 여자와 남자의 죽음 수용 정도가 다르다는 가설은 p -값이 둘 다 0.001로서 채택할 수 있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한다는 가설은 p -값이 0.999로서 기각된다.

이러한 결과를 종교 유무 집단별로 나누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무교 집단 내에서의 성별 죽음 수용 정도를 T -검정한 결과, 남녀(59%:41%)는 각각 39.07, 39.74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남자가 여자보다 덜 수용적이라는 가설, 두 집단의 죽음 수용 정도가 다르다는 가설,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수용적이라는 가설의 p -값은 각각 0.192, 0.383, 0.808으로 나타나 모두 기각되었다.

종교인 집단 내에서는 여자(63%)가 남자(37%)보다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남자와 여자의 평균은 각각 39.53, 41.31이었고,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수용적이라는 가설과 두 집단의 수용 정도가 다르다는 가설의 p -값이 각각 0.003, 0.006으로 채택되나, 여자가 남자보다 덜 수용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p=0.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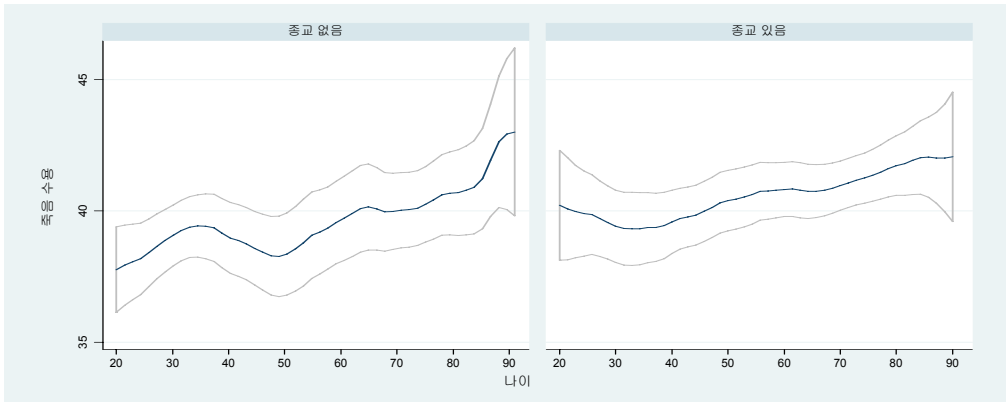
2) 종교 유무 집단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나이는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인정된다. 전체에 대해 죽음 수용과 나이와의 관계를 나타내면 <그림 1>³⁾과 같다. 죽음 수용은 약 39에서 42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거의 직선에 가까운 형태로 완만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림 1>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3) 이하 비슷한 그림도 모두 로에스 방법을 기반으로 하여 그린 것이다. 중간의 곡선은 독립변수의 평균값을 추정하여 보여주는 곡선이고, 곡선 주변은 신뢰 구간 95%를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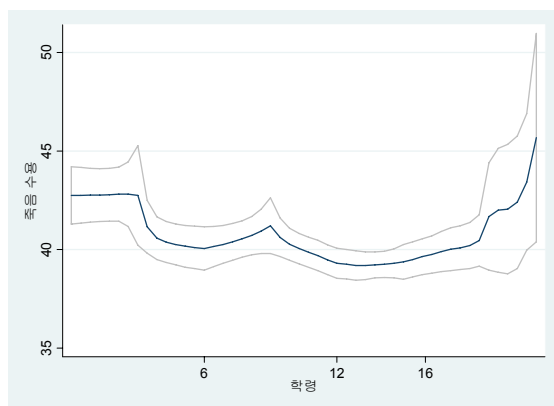
〈그림 2〉 종교 유무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이를 종교 유무별로 나누어 보면 〈그림 2〉와 같이 두 집단 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무교 집단의 경우 20세와 50세 근처에서 급히 낮은 값을 보이다가, 80대 중반 이상에서 급상승하는 N자형 관계를 보인다. 종교인 집단의 경우 30대 중반에서 낮은 값을 보이다가 반등하여 점진적으로, 거의 직선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종교인의 경우 30대 중반부터 죽음 수용의 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하는데,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죽음을 수용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10년 이상 빠르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두 집단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때 가장 명확한 차이는, 무교 집단의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변동이 종교인 집단보다 더욱 비선형적이며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즉 종교는 죽음을 비교적 젊은 나이에 수용하기 시작하도록 하고, 그러한 경향이 나이가 들면서 서서히 강화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3) 종교 유무 집단 내에서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

학령은 사회과학적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변수이면서, 위에 제시된 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나이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학령 자체가 변수로서 갖는 중요성이 매우 크므로 죽음 수용과 학령 두 변수들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탐색적 연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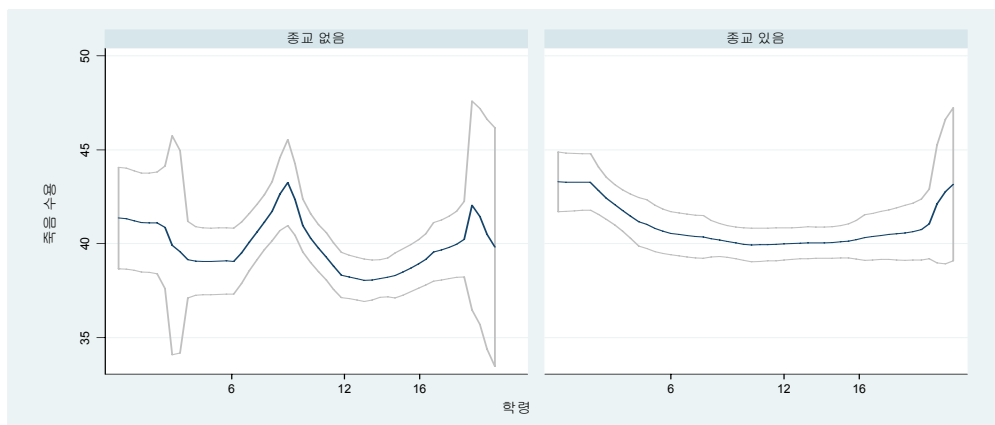
전체 집단에 대해 학령과 죽음 수용과의 관계를 보면 〈그림 3〉에서처럼 상당히 비선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 학령을 독립변수로 볼 때 죽음 수용이 가장 낮은 시기는 학령이 12에서 16 사이인 대학 재학 정도의 학령으로 보이며, 전체 관계는 W자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단, 학령이 16 초과 즉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에 급상승하는 경향이 상당히 뚜렷하다. 따라서 학령이 12인 고졸에 해당하는 시점으로부터 보면 학령이 높을수록, 특히 대



〈그림 3〉 죽음 수용과 학력의 관계

학원 이상의 고학력에서 죽음을 더욱 수용하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에서 학력 질문 응답자 98명 중, 학력 6 미만은 12.6%이고 16 초과는 2.5%였다. 따라서 양 극단의 상대적 소수 집단에게서 관찰된 경향이 전체 인구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같은 관계를 종교 유무별로 보면 〈그림 4〉와 같다. 무교 집단의 경우에는, 학력에 따른 죽음 수용의 변동이 전체 집단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W자형으로 심한 부침이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종교인 집단의 경우에는 매우 완만한 U자형의 관계를 보이는데, 대졸에 해당하는 학력 12, 즉 고졸 이후부터는 서서히 상승하는 추세가 어느 정도 관찰된다.



〈그림 4〉 종교 유무별 죽음 수용과 학력의 관계

이하에서는 현대 한국에서 대형 종교로 인정받으며 이 조사 자료에서도 각각 25%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불교와 개신교 여부별로 위에서 한 것과 유사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이러한 구분에 의한 비교 즉 특정 종교와 여타 집단을 비교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구분과는 다를 수 있어도, 전체 집단으로부터 분리된 집단으로서의 특정 종교인들의 성향 또는 특정 종교의 효과를 파악하기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분석 목적으로 분리된 종교 대 무교와 여러 종교의 혼합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4. 불교 여부와 죽음 수용

불교도는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죽음 수용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교도는 죽음 수용 평균값이 39.45로서 여타 집단의 평균 40.40보다 거의 1 정도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T-검증 결과, 불교도가 여타 집단에 비해 죽음 수용이 낮다는 가설은 채택되고($p=0.04$), 여타 집단이 불교도보다 더 낮거나 둘이 다르다는 가설은 기각되었다(p -값 각각 0.96, 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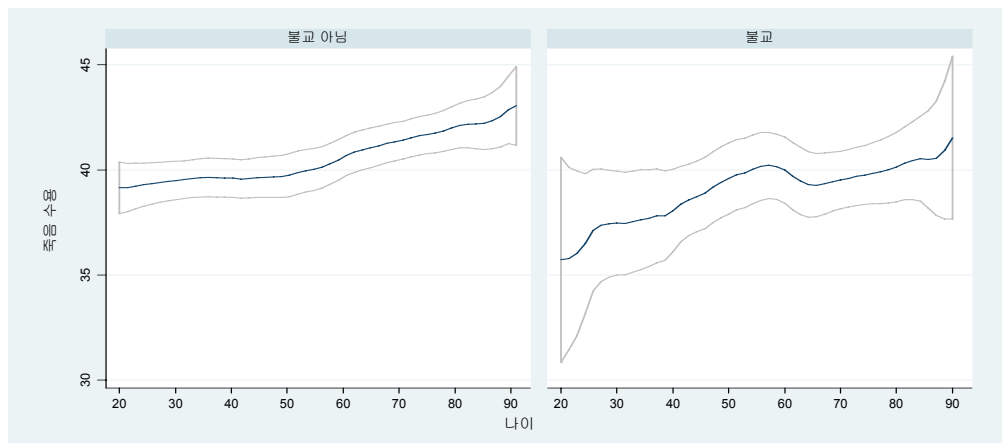
1)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의 성별 차이

불교도 여부별로 죽음 수용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니, 어느 집단이든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불교도 집단에서는 죽음 수용에 대해 남녀가 각각 39.61, 41.18로 나타났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한다는 가설과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가설이 각각 0.003, 0.006의 p -값을 보임으로써 채택할 수 있으나, 남자가 여자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한다는 가설은 p -값이 0.997으로 나와 기각된다.

불교도 집단 내에서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욱 죽음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죽음 수용값 각각 40.17, 38.13). 여자가 남자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한다는 가설 및 두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가설은 각각 0.021, 0.043의 p -값을 나타내어 채택할 수 있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욱 죽음을 수용한다는 가설은 p -값이 0.979이므로 기각된다.

2)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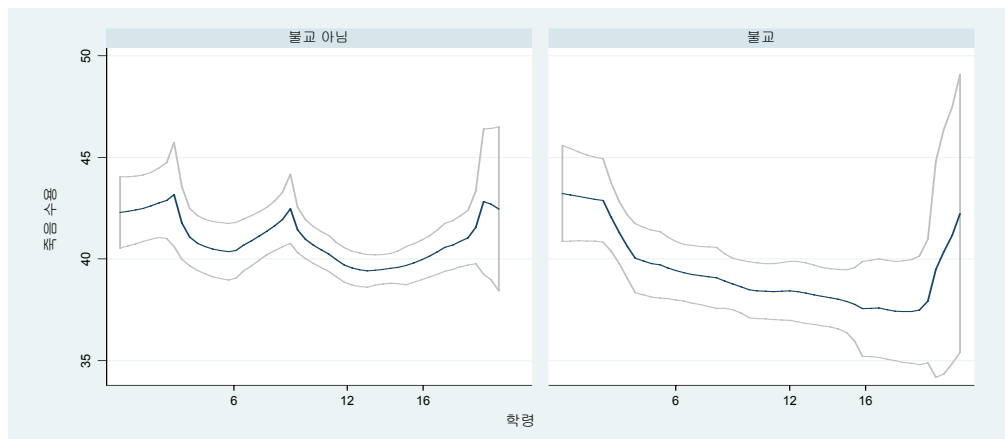
불교도와 여타 집단의 죽음 수용과 나이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먼저 불교도가 아닌 집단을 보면 불교도에 비해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 수용이 완만히 직선형에 가깝게 올라간다. 그에 비해 불교도는 전반적으로는 나이가 들에 따라 상승하지만 나이 60~65 즈음의 연령대에서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0대 후반부터는 60대 미만의 연령대에 비해 더욱 완만히 재상승한다. 즉 노년기에 접어드는 연령대에서 죽음을 일시적으로나마 덜 수용하는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림 5〉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3)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는 〈그림 6〉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불교도가 아닌 응답자의 경우, 전체 또는 무교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W형의 경향을 보이는데 6과 12~16에 해당하는 부분 즉 국졸 및 대재 학령대에서 낮은 경향이 나타난다. 이에 비해 불교도의 경우 약간의 대학원 교육을 받은 학령대 즉 20 전후까지 하강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그보다 상위 학령대에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비슷한 추세는 무교 집단과 비교한 종교인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그림 6〉 불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

5. 개신교 여부와 죽음 수용

개신교도는 여타 집단에 비해 죽음 수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도의 죽음 수용 평균은 42.07로서 여타 집단의 평균 39.48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검증 결과 개신교 여부별로 죽음 수용값이 다르다는 가설과 개신교도가 여타 집단보다 더욱 큰 값을 나타낸다는 가설은 둘 다 p -값이 0.000이어서 채택할 수 있으나, 개신교도가 여타 집단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는 가설은 p -값이 1.000으로 나와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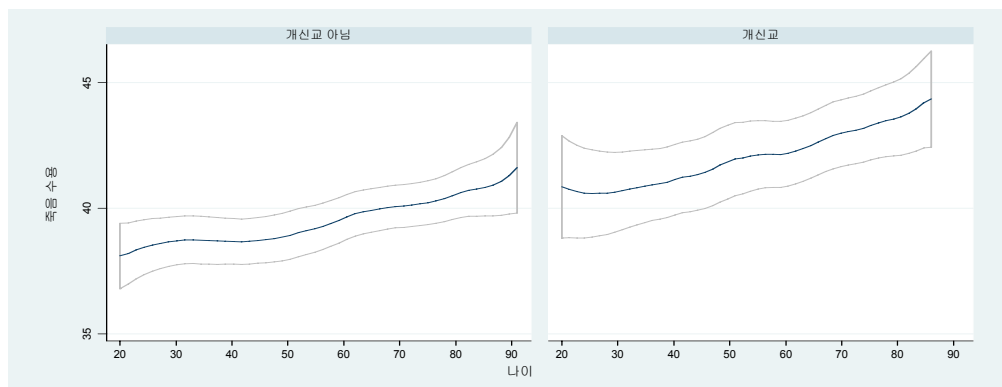
1)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의 성별 차이

개신교 여부별로 죽음 수용의 성별 차이를 T-검증한 결과, 위에서 살펴본 결과와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비개신교 집단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죽음 수용값이 각각 40.03, 38.87로 나왔는데, 두 집단에 대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두 집단이 다르다는 가설과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가설의 p -값이 각각 0.038과 0.019로서 채택되었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는 가설은 0.981로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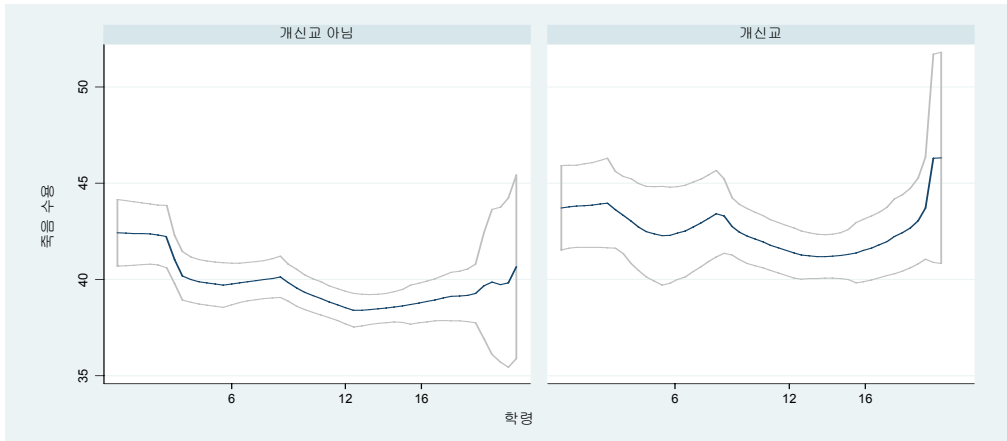
개신교 집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남성보다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평균값은 각각 42.93과 40.79였는데, 두 집단의 죽음 수용값이 다르다는 가설과 여성이 남성보다 높다는 가설의 p -값은 각각 0.023, 0.012로 채택할 수 있으나, 여성이 남성보다 낮다는 가설의 p -값은 0.989로 기각되었다.

2)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비교하면 <그림 7>과 같다. 이 비교



〈그림 7〉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



〈그림 8〉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

의 경우, 위에서 사용한 다른 이항 변수로 집단 구분한 결과와는 약간 다른 경향이 보인다. 개신교 여부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죽음을 수용하는 경향이 두 집단 모두에서 거의 직선형적으로 보이니, 개신교 집단의 죽음 수용도가 더욱 높다는 것이 확실히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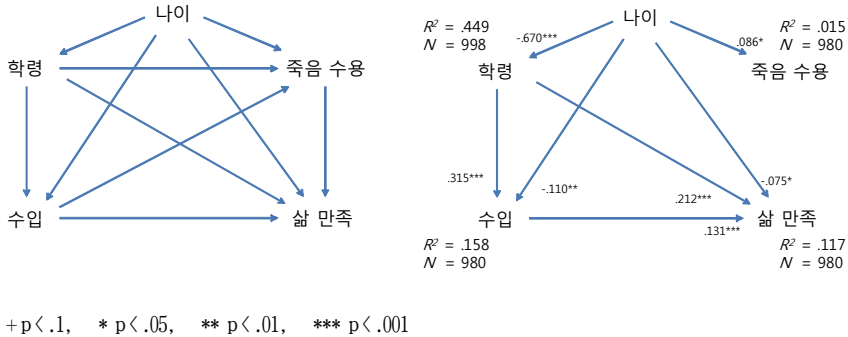
3)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

개신교 여부별 죽음 수용과 학령의 관계를 그림으로 비교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이 비교에서도 바로 위의 비교와 같이 변동 양상은 대략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개신교도가 더욱 높은 값을 유지하면서도, 대재 학령대라 할 수 있는 12~16 부근에서는 두 집단 모두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이다가 그 이상의 학령대에서 상승하는 경향이 보인다. 차이점은 개신교의 경우 학령 16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더욱 급상승한다는 것이다.

6. 경로분석

1) 가설과 전체 집단의 분석 결과

여기에서는 위의 분석에서 죽음 수용과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배경 변수들과 삶 만족과의 관계를 경로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비록 삶 만족은 죽음 수용 등의 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관계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회 조사 자료의 분석에서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상관관계 또는 회귀분석과는 달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경로분석을 통해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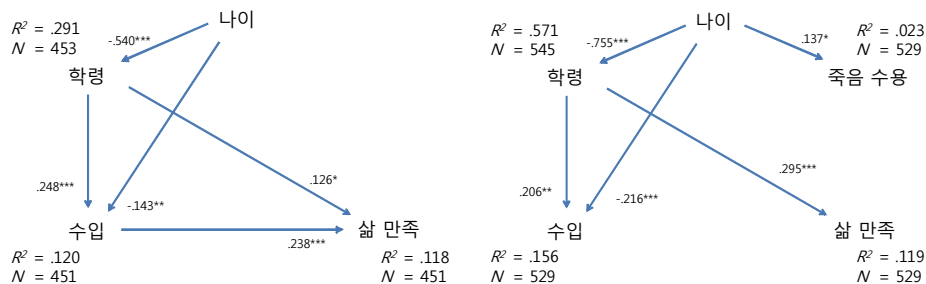
〈그림 9〉 경로분석: 가설 모형(좌)과 전체 응답자 분석 결과(우)

될 수도 있는 간접적 상관 또는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9〉의 왼쪽과 같은 가설 모형에 삽입하였다. 그 결과 전체 집단에 대해서는 〈그림 9〉의 오른쪽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나이가 학령과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상식화되었다. 학령이 수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주목하려는 부분은 죽음 수용과 삶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다. 죽음 수용은 위에 제시한 가설과 같은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는 나이, 학령, 수입 중 나이에만 정(+)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비해, 나이에 의해 부(-)의 영향을 받는 삶 만족은 기타 변수로부터 정(+)의 영향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죽음 수용이 삶 만족에 비해 통계적 분석에서 많이 쓰이는 인구, 사회, 경제적 배경 변수들과 직접적 인과 관계가 적을 가능성을 보여주므로, 종교와 같은 변수와의 연관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성별 경로분석 결과

위의 경로분석 가설 모형을 성별로 검증한 결과는 〈그림 10〉과 같다. 남성의 경우 죽음 수용을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 관계는 없다. 학령과 수입이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준다는 상식적 결과가 확인될 뿐이다. 여성의 경우를 보면, 죽음 수용에는 나이만 영향을 주고 삶 만족에는 학령만 영향을 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집단에 대한 검증에서 나타난 바와 마찬가지로 나이가 인구학적으로 매우 기본적인 배경 변수이면서도 죽음 수용과 같은 추상성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남성과 비교한 여성의 경우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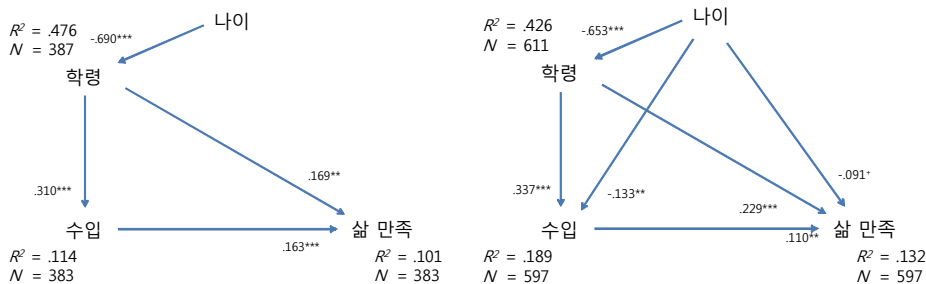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0〉 남성(좌)과 여성(우)의 경로분석 결과 비교

3) 종교 유무별 경로분석 결과

종교 유무별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1〉과 같다. 두 집단 공히 죽음 수용은 여타 변수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경로를 형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죽음 수용이 이러한 가설적 경로 모형에서는 삶 만족보다 여타 변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무교 집단의 경우 학력과 수입만 삶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무교 집단과 달리 종교인 집단에게서는 나이의 영향력이 가장 큰 차이점으로 드러나는데, 나이가 수입 및 삶 만족에 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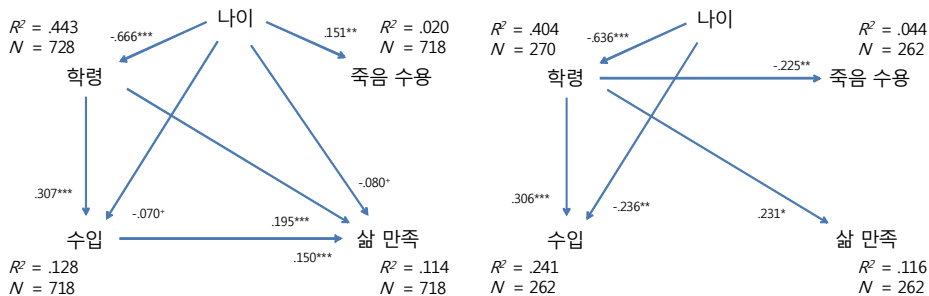
〈그림 11〉 무교(좌)와 종교인(우)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비교

이러한 결과는 종교인 집단 내에서도 각 종교마다 삶 만족에 대한 비교적 일치적인 영향과 달리, 죽음 수용에 대해서는 종교별로 더욱 분화된 인식을 갖게 한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이 결과를 앞에서의 죽음 수용과 기타 변수들과의 관계를 종교 유무별, 주요 종교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와 종합하면, 이러한 경로분석 역시 종교별로 나누어 해봄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다음은 한국의 주요 종교이자 앞의 분석에서 여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차별적 경향을 보인 불교와 개신교를 각각 가변수로 삼아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 살펴보기 위한 분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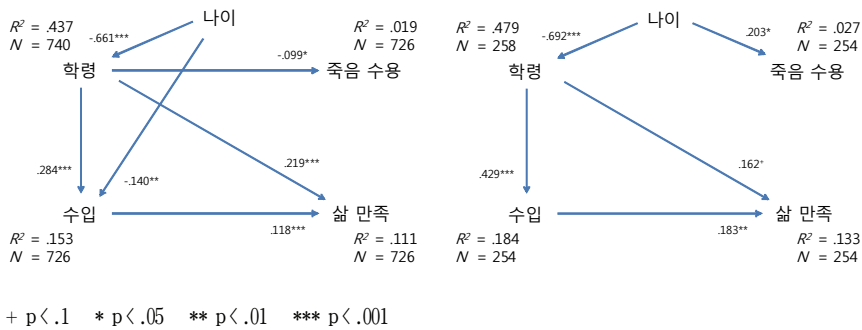
4) 불교 여부별 경로분석 결과

불교 여부별 경로분석 결과는 <그림 12>와 같다. 죽음 수용과 관련된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도는 비불교도와 달리 학령이 높을수록 죽음을 덜 수용한다는 것이다. 비불교도 집단에서는 죽음 수용과 삶 만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변수가 나이뿐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삶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삶 만족에는 학령과 수입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 불교도들의 경우에는 차이점이 나타난다. 경로분석에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차이는 불교도들의 경우, 학령이 죽음 수용과 삶 만족에 각각 부(-)의 영향과 정(+)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주는 유일한 독립변수라는 것이다.



+ $p < .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2> 비불교(좌)와 불교(우)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비교



〈그림 13〉 비개신교(좌)와 개신교(우) 집단의 경로분석 결과

5) 개신교 여부별 경로분석 결과

개신교 여부별로 경로분석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두 집단 간에 죽음 수용과 관계된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개신교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여타 집단에 비해 죽음을 수용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가장 비개신교 집단에게는 학령만이 죽음 수용에 부(-)의 영향을 주고, 학령과 수입이 삶의 만족에 정(+)의 영향을 준다. 개신교도들에게는 나이만이 죽음 수용에 정(+)의 영향을 주되, 비개신교 집단과 마찬가지로 학령과 수입이 공히 삶 만족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V. 결론

1. 주요 발견 사항

위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인의 죽음 수용과 종교 및 기타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종교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죽음에 대해 전반적으로 더욱 수용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 한국의 종교가 상업화, 세속화되었다고 비판하지만, 종교의 고유 기능 중의 하나인 죽음에 대한 공포 감소는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죽음 수용을 성별로 보면, 종교적 여성이 종교적 남성보다 죽음을 더욱 수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 집단을 남녀로 나누어 비교한 자료뿐 아니라 기타 종교 관련 여러 이항 변수로 나눈 분석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무교 집단 내에서는 T-검증 결과 남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종교인 집단 내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죽음 수용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가 죽음을 더욱 수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리, 특히 여성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남을 보여 준다.

이러한 결과는 불교 및 개신교 여부별로 본 성별 죽음 수용의 차이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른 종교와 관련하여서도 죽음 수용에 대한 성별 차이가 비슷하게 발견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죽음 수용과 나이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해 더욱 수용적으로 변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종교인이 무교의 경우보다 더 젊을 때 즉 약 30대 중반부터 죽음 수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며 기복이 적다. 불교도는 60대 초 즈음에 죽음 수용값이 부분적으로 떨어졌다가 재상승하는 경향이 관찰되어 비불교의 경우에 비해 N자형에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고, 개신교 여부별로 죽음 수용과 나이의 관계를 보면 양 집단 모두 거의 직선형으로 나이가 들수록 죽음 수용적이 된다.

넷째, 죽음 수용과 학령과의 관계는 부드러운 W형 곡선으로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종교인 및 불교도 집단에서는 사라지나 개신교 여부별로 나누는 경우에는 양 집단에서 공히 발견된다. 분류된 집단에 관계없이 대재 학령대에서 죽음 수용도가 가장 낮고 대학원 이상의 고학령에서 급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교육 수준과의 관계를 직선형으로 가정하고 검토한 대부분의 선행연구(김연숙·김지미 2009)에서는 발견하거나 상세히 논하기 어려웠던 내용이다.

다섯째, 위의 경로분석 가설 모형에서처럼 죽음 수용의 인과 관계를 나이, 학령, 수입 및 삶 만족과 같은 변수와의 다층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및 (남성을 제외한) 여성의 경우 나이가 죽음 수용에 정(+)의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이 재확인된다. 이러한 나이와 죽음 수용 간의 관계가 불교도 및 비개신교 집단의 경우 사라지는 대신 학령이 죽음 수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어떻게 분류한 집단이든 죽음 수용은 삶 만족과 직접적 인과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일부 선행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할 수 없었다.

2. 토론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밝혀진 사항들 중 두 점에 대해 토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몇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대로, 죽음 수용과 종교, 나이, 학령 등과의 관계에 대해 선형성(linearity)을 가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일 수 있다는 점이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이 연구에서는 종교를 가변수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변수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선형성이 덜 적용되겠지만, 사실상 연속 변수로 간주할 수 있는 나이나 학령 등과의 관계를 보아도 상관관계 또는 회귀분석에서 가정하는 선형적 관계보다는, 예컨대 N 또는 W자형과 같은 훨씬 더 복잡한 유형의 관계가 드러난다. 이러한 발견이 다른 자료에도 적용된다면 죽음 수용뿐 아니라 죽음과 관련된 여러 태도와 기타 변수와의 관계에 대해 비선형적 관계를 가정하여 연구를 확장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교와 개신교가 앞의 분석 결과에서 매우 다른 결과를 보였듯이, 종교마다 죽음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르칠 수 있으므로 여러 종교들을 종교라는 공통성 때문에 하나의 요인으로 인식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종교인의 대다수가 천주교와 개신교이므로 두 종교의 교리가 적어도 죽음에 대한 태도 등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전통 종교와 서양으로부터의 종교가 함께 주요 종교로 부상한 상황에서 세계관이 판이하게 다른 종교들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분석하는 방법은 앞으로 피해야 할 것이다.

각 종교 여부별로 타 변수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부침의 유형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들과의 관계까지 고려하는 심층적 후속 연구가 있어야 충분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개신교도가 불교도보다 더 수용적인 점은 수십 년 전 미국의 연구에서도 발견되었던 바이며(Patrick 1979), 그 이유는 상식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불교는 윤회 사상에서 이생에서의 삶이 충분히 바람직하지 않으면 다음 생에서 인간보다 못한 존재로 태어난다고 가르친다. 이에 반해 개신교(또는 기독교 전반)에서는 비록 죄를 많이 지었더라도 신앙을 통해 회개하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가르친다. 이러한 차이점은 죽음 이후에 닥칠 일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즉 불교가 죽음에 대해 불안감을 생성한다면 기독교 계통에서는 그에 반해 수용감을 느끼도록 한다.

3. 함의

이 연구의 학술적 함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한국 사회가 과거에 비해 탈종교화된 듯한 면도 많이 있지만, 종교 유무 및 주요 종교에 따라 죽음 수용의 정도가 다르고 죽음 수용과 성별, 나이 및 학령과의 관계가 종교별로 다른 유형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종교 변수는 신앙심의 깊이 또는 종교적 활동의 빈도로서의 종교성이 아닌 범주로서의 종교였음에도 죽음 수용 등과 관계되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종교의 효과 및 종교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연구할 경우, 죽음 수용뿐 아니라 다른 추상성에 대해서도 종교 유무에 따른 또는 특정 종교 여부별 차이가 추가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종교와의 연관성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가능하다면 범주로서의 종교뿐 아니라 정도의 차이를 논할 수 있는 표준화된 종교성 측정 도구도 개발할 수 있었으면 한다.

정책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극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들에게 예방 또는 치료 목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응용될 수 있다. 죽음 불안 또는 수용의 정도가 지나치게 낮거나 높으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등 이상 증세로 이어지기 쉬운데, 그러한 취약 집단에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할 때에도, 이러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과를 적극 참고하여 어떠한 속성 또는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의 죽음 수용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하여 프로파일링함으로써 정책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표집과 척도를 중심으로 논할 수 있다. 비록 대부분의 선행연구에 비해 전국 규모의 대형 표본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장점으로 인정되어야 하나, 몇 기본 변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인구 구조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연구 결과에서 중요한 부분은 빈도 중심의 기술 통계가 아니지만, 여성과 고령자가 약간 많이 표집되었음을 감안하여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사용된 죽음 수용 척도 역시 연구자마다 다른 것을 쓰는 경향이 있으므로, 비록 자주 쓰이는 질문을 사용하고 양적으로 내적 일치도를 확보하였지만 죽음 수용에 대한 다른 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에서 죽음 관련 태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측정 도구가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길란·이영숙. 2008. “노인의 죽음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7(4): 639-648.
- 고승덕·김은주·김영규·김충천. 1999.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의식조사 연구.” 《보건과 복지》 2(206): 30.
- 권오균. 2008. “노인복지시설 거주노인의 죽음불안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 연구》 41(0): 27-50.
- 김미숙·박민정. 2000. “종교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노년학》 20(2): 29-47.
- 김수정. 2006. “노인의 종교활동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사회적 지지 및 실존적 건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3: 29-50.
- 김연숙·김지미. 2009. “노인의 사회인구적 특성과 죽음불안: 죽음불안의 세부영역을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9(1): 275-89.
- 김지현·민경환. 2005. V천년 집단의 죽음 공포와 죽음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4(2): 11-36.
- 남재화. 2007. V노인의 레저 스포츠활동 참가와 죽음불안 및 삶의 의미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5): 189-98.
- 문남숙·남기민. 2008. V노인의 죽음준비도와 성공적 노화의 관계 -우울 및 죽음불안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8(4): 1227-48.
- 서혜경·윤민석. 2008. “성별과 배우자 유무가 죽음불안도 4가지 세부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39(0): 249-72.
- 손용진. 2007. “노인기의 종교변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노인복지연구》 36(0): 181-200.
- 여인숙·김춘경. 2005. “노년기 죽음불안과 사회적 활동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6: 75-101.
- 윤가현·오미성·권혜란. 2007. “죽음의 불안과 노화과정.” 《한국노년학연구》 16: 157-171.
- 윤여정. 2000. 《한국노인의 긍정적 죽음수용에 관한 연구》. 한림대학교.
- 윤진. 2001. 《성인 노인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이지영·이가옥. 2004. “노인의 죽음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4(2): 193-215.
- 이현지·조계화. 2006. “노인의 죽음불안과 우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6(4): 717-31.
- 장덕희·이승민. 2007. “가족요인이 노인의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37: 89-109.
- 전미애. 1999. “종교와 노인의 정신 건강과의 관계.” 《종교와 문화》 5: 83-98.
- 전영기. 2000. 《노년기 죽음불안요인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 전혜정. 2004. “노년기 종교활동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25: 169-186.
- 최외선. 2007. “노인의 자아통합감과 죽음불안에 대한 연구.” 《한국노년학》 27(4): 755-773.
- 한영란. 2007. “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와 죽음에 대한 공포간의 관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0-41.
- 홍현방. 2002. “성공적인 노화와 노인의 종교성 관계 연구.” 《한국노년학》 22(3): 245-259.
- Cicirelli, V. G. 1999. “Personality and Demographic Factors in Older Adults' Fear of Death.” *Gerontologist* 39(5): 569-579.
- Cleveland, W. S. 1979. “Robust Locally Weighted Regression and Smoothing Scatterplot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74(368): 829-836.
- Falkenhain, M. and P. J. Handal. 2003. “Religion, Death Attitudes, and Belief in Afterlife in the Elderly: Untangling the Relationships.” *Journal of Religion and Health* 42(1): 67-76.
- Fortner, B.V. and R.A. Neimeyer. 1999. “Death Anxiety in Older Adults: A Quantitative Review.” *Death Studies* 23(5): 387-411.
- Hoelter, J.W. and R.J. Epley. 1979. “Religious Correlates of Fear of Death.”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8(4): 404-411.
- Levin, J. S., R. J. Taylor and L. M. Chatters. 1995.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Religious Involvement for African American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6(1): 157-173.
- Neimeyer, R. A. 1994. “The Threat Index and Related Methods.” pp.121-48. in Neimeyer, Robert A. (eds.). *Death Anxiety Handbook*.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
- Neimeyer, R. A., B. Fortner and D. Melby. 2001. “Personal and Professional Factors and Suicide Intervention Skills.” *Suicide and Life-Threat Behavior* 31(1): 71-82.
- Nelson, L. D. and C. H. Cantrell. 1980. “Religiosity and Death Anxiety: A Multi-Dimensional Analysis.” *Review of Religious Research* 21(2): 148-57.
- Patrick, J. W. 1979. “Personal Faith and the Fear of Death among Divergent Religious Populations.”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8(3): 298-305.
- Thorson, J. A. and F. C. Powell. 1990. “Meanings of Death and Intrinsic Religios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6(4): 379-91.
- Wink, P. and J. Scott. 2005. “Does Religiousness Buffer Against the Fear of Death and Dying in Late Adulthood? Findings From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Gerontology: PSYCHOLOGICAL SCIENCES* 60(4): 207-214.
- Wong, P. T. P., G. T. Reker and G. Gesser. 1994. “Death Attitude Profile-Revised: A Multidimensional Measure of Attitudes toward Death.” pp.121-48. in Neimeyer, Robert A. (ed.). *Death Anxiety Handbook*. Washington, DC: Taylor & Francis.